

<2010년 7월 2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육적인 사랑 세계는 ‘마음의 흥분’으로 시작되고, 주님과 영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마음의 감동’으로 시작된다.
2. 먼저 자격을 갖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자동적으로 영계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을 매일 사랑하면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사는 자의 영을 보면 그 자체가 빛난다. 이렇게 사는 자는 지상세계에 살고 있으나 영적인 자가 되어 사는 자다.
3. 영적인 자가 정신도 강하고 행동도 강하여 사탄을 이기고, 주님의 손발이 되어 전도도 잘하고, 신령한 눈을 떠서 모든 일을 보고 감동을 받아 먼저 움직인다.
4. 영계는 육신 생각의 실상 세계이며, 육신 행동의 실상 세계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매일 온전하도록 반복하며 행해야 된다. 몸이 좋아지는 것도, 건강해지는 것도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다. 3개월, 7개월, 1년씩 운동하고 가꾸야 좋아지고 표가 난다. 식사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고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한 번의 기도로 표가 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영이 빛나게 하려면 육신의 체력을 좋게 하듯이 몇 달, 혹은 1년씩 해야 된다. 건강도 몇 달씩 음식 조절을 하며 약을 먹고 기도해야 표가 나게 좋아진다.